

LG화학, 미국 우수인력 채용 추진

신규사업 이끌어갈 해외인재 확보 ... 2차전지 및 LCD 유리기판 대상

LG화학이 신규사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채용의 문을 해외로 넓히고 있다.

LG화학은 4월2-3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의 티넥에서 최고경영자(CEO)인 김반석 부회장과 최고인사책임자(CHO)인 육근열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채용행사를 열었다고 4월4일 발표했다.

현지 주요 대학의 학생과 경영학석사(MBA), 연구개발(R&D) 분야 박사과정 이수자 등 30여 명이 초청된 이 행사는 김반석 부회장이 직접 주재했다.

취임 이후 5년째 미국에서 채용행사를 이끈 김반석 부회장은 그동안 “미래 신규사업의 성패는 남보다 먼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남보다 빨리 사업을 안정화하는 것에 달렸다”며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LCD(Liquid Crystal Display)용 유리기판 등 미래 신규사업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여왔다.

LG화학은 2005년 시작한 BC Tour(Business & Campus Tour)와 학술세미나 형식의 Tech Fair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해외에서 우수인재 120여명을 채용했다.

육근열 부사장은 “미국 행사에 참여한 30여명을 채용하고, 일본과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2010년 R&D 인력 330여명과 신규 생산설비에서 근무할 500여명을 포함해 모두 1000여명의 신입·경력 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05>